



| 순천 행동 푸조나무 (순천부읍성내 푸조나무)

- 소재지: 순천시 행동 101번지
- 지정내용: 순천시 향토문화유산

순천 행동 푸조나무는 삼성생명(주) 빌딩의 뒷쪽 휴게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옛 순천부읍 성터에 자라는 노거수로 수종은 푸조나무이고, 수고 25m, 기슴둘레 5m이며, 수령은 5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순천부읍성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와 같은 용도로는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진 사당이, 부산 수영구 등에는 푸조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순천 행동 푸조나무도 서식지의 역사적 의미, 수목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 순천 옥천동 느티나무

- 소재지: 순천시 옥천동 128-2
- 지정내용: 순천시 향토문화유산

순천 옥천동 느티나무는 옥천서원(임청대) 부근 균린공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여년 까지도 마을의 당산체를 지냈던 당시 산목으로 이용 되었다. 이 느티나무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는 「임청대기」, 「강남악부」 장노리조에 임청대앞에 노수(老樹)를 엮어갔다 했다는 기록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노거수의 역사를 찾을 수 있어 조선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다.

| 순천 구 남장로교회 조지와츠 기념관

- 소재지: 순천시 매산길 11
- 지정내용: 등록문화재 제127호
- 시대: 1925년(주정)
-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순천 구 남장로교회 조지와츠 기념관은 순천선교부 개설과 함께 현지인으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프레스톤선교사가 설립한 보통성경학원으로 출발하였다. 1925년 현재의 위치에 보통성경학교를 세우고 전도사를 양성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 되었으며, 이후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 당시 순천지방을 관할하는 미군정의 사무소로 활용되었다.

1963년 결핵환자 진료소를 개설하고, 2000년에 한국기독교 선교역사박물관 등대선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지와츠 기념관을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붕은 아연합성재를 사용하여 박공형 경사지붕에 박공형 지붕창을 사용하였으며, 칭호는 단순한 모양의 수직수평의 오르내리창 두개를 붙여서 격자패턴으로 구성, 창문이 큰 경우에는 창살의 개수가 많아져 유리크기의 제조 기술적 한계극복과 더불어 장식적인 효과를 함께 하고 있다.

지금의 조지와츠 기념관은 1986년 연결통로에 의한 관리사 수평증축 당시 3층(다락)부분이 주택으로 변경되어 건축을 활용상 수직으로 확장 변용을 가져왔으며, 1963년 이후 교육 및 집회용도에서 의료기능이 추가되었다.

2004년 이후 2-3층 부분이 선교박물관으로 변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건축물의 활용 목적으로 본다면 기독진료소는 지금은 소설된 안역산병원의 연장선으로, 선교박물관은 직접 교육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간접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쓰임은 다소 바뀌었으나 당초의 목적은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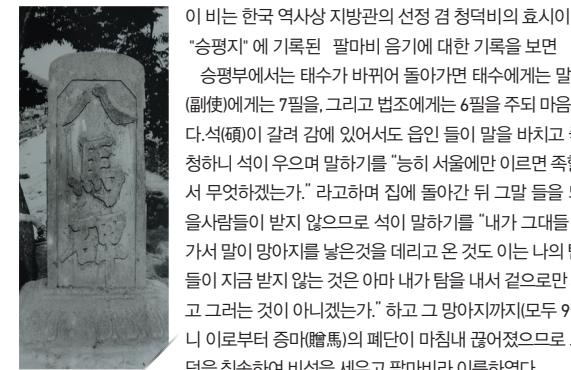
| 순천 옥천동 느티나무

- 소재지: 순천시 옥천동 128-2
- 지정내용: 순천시 향토문화유산

순천 옥천동 느티나무는 옥천서원(임청대) 부근 균린공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여년 까지도 마을의 당산체를 지냈던 당시 산목으로 이용 되었다. 이 느티나무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는 「임청대기」, 「강남악부」 장노리조에 임청대앞에 노수(老樹)를 엮어갔다 했다는 기록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노거수의 역사를 찾을 수 있어 조선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다.

| 순천팔마비 (유형문화재)

- 소재지: 순천시 영동 1
- 지정번호: 유형문화재 제76호



이 비는 한국 역사상 지방관의 선정 겸 청덕비의 효시이다.

승평부에서는 태수가 바뀌어 돌아가면 태수에게는 말 8필을 주고 부사(副使)에게는 7필을, 그리고 법조에게는 6필을 주되 마음대로 고르게 하였다. 석(碩)이 갈려 감에 있어서도 읍인들이 말을 바치고 좋은 것 고르기를 청하니 석이 우으며 말하기를 “능히 서울에만 이르면 죽할 것을 말을 골라서 무엇하겠는가.”라고하며 집에 돌아간 뒤 그말 들을 되돌려 보내니 고을사람들이 받지 않으므로 석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 고을에 수령으로 가서 말이 망아지를 낳은것을 데리고 온 것도 이는 나의 탐목이 된다. 그대들이 지금 받지 않는 것은 아마 내가 텁을 내서 걸으면 사양하는 줄로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하고 그 망아지까지(모두 9필)이아울러 돌려주니 이로부터 증마(增馬)의 페단이 마침내 끊어졌으므로 고을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우고 팔마비라 이름하였다.

| 옥천서원

- 소재지: 순천시 임청대길 18
- 지정내용: 문화재자료 제4호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희생된 한

월당 김광필(1454~1504)을 주묘하는 서원이다. 김광필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 어려서 부터 김종직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후에 조선 오현(五賢)의 한 사람으로 불렸으며, 죽은 뒤에는 우의정의 직함을 받기도 하였다.

1564(명종 19)에 부사 이정이 처음 세웠고, 1568(선조 1)에 순천부사 김계의 상소로 전

라도에서는 처음으로 ‘옥천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한때 화재로 불탄 것을 1928년 유림들이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른다. 건물 배치는 경현문을 들어서면 강당인 침의당, 내삼문 그리고 사당인 옥천사가 있다. 사당은 앞면 3칸·옆면 1칸 반 규모이며 앞면에 뒷마루를 깔아 개방하였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당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강당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가운데는 대청 마루를 깔고 양쪽 문에는 온돌방을 놓았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 옥천서교

- 소재지: 순천시 향교길 60
- 지정내용: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7호
- 지정일: 1985년 2월 25일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있던 지방교육기관으로 문묘공간(文廟空間)인 대성전(大成殿)과 강학공간(講學空間)인 명륜당(明倫堂), 풍화루 등의 건물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토지·노비·책 등을 지금 받아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1894년) 이후에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에 제사만 지낸다. 순천향교는 1407년

(태종 7)에 성동리에 세웠으나, 1550년에 옮겼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801년(순조 1)에 현재의 위치에 다시 지었다.

| 순천향교 이건기록

- 1407년(태종 7) 순천성(순천읍성) 동쪽에 건립(城東七里)
- 1550년(명종 5) 순천성(순천읍성) 서쪽으로 이건(城西五里移建)
- 1610년(인조 2) 옛 자리 북쪽에 이건(城西舊址北邊移建)
- 1780년(정조 4) 순천성 남쪽 홍내동에 이건(城南十里鴻內同移建)
- 1801년(순조원년) 순천성 서쪽 금곡동에 이건(城西金谷洞移建)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공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하는 배움의 공간이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외삼문과 명륜당은 앞쪽에 내삼문과 대성전은 뒤편에 일직선으로 놓여 있어 향교의 일반적 배치형식인 전학후묘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옆면 3칸의 맞배지붕 겹쳐마 건물로, 전보간(前廊間의 둔장방침枋) 위로는 회반(花盤)을 놓았다. 대성전 좌우에는 동재(東齋)-서재(西齋)가 있는데, 동재는 양반들이 거처하던 곳이며 서재는 서류를 두었던 곳이다.

주건을 이외에도 유사실(有司室), 풍화루(風化樓), 제기고(祭器庫) 등이 있어 조선시대 향교배치형식(鄉校配置形式)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 순천 임청대

- 소재지: 순천시 임청대길 18
- 지정내용: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7호
- 크기: 높이 133cm, 너비 99cm, 두께 20cm



비는 원래 현 위치로부터 동쪽으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최근에 현 위치로 이전하고 정면 1칸, 옆면 1칸의 비각을 세웠다. 비석은 현재 옥천서원 경기문 우측에 있다.

1563년(명종 18)에 세워진 이 비석 전면의 ‘임청대’ 글씨는 퇴계 이황의 필작이며, 후면에 음각된 글씨는 정소(鄭沼)가 썼다. 비석은 현재 옥천서원 경기문 우측에 있다.

세운 일을 맡은 사람은 배숙이었다. 비의 건립 동기는 비의 뒷면에 새겨 있다. 조위(曹偉)가 순천에 유배되어 이곳 임청대 부근에서 현지의 서류들과 강론하였는데, 1년 후 김광필이 다시 순천에 유배되어 오자 문문수학이었던 두 인물이 유배지에서 다시 만나 예장을 나누며 교유했던 곳이란 점에서 비롯된다. 그뒤 순천부사 이정(李正: 1512~1571)이 이를 알고 양현(兩賢)을 추모하기 위해 ‘임청대기’를 짓고, 이를 비석에 새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석질이 좋지 않아 ‘임청대기’의 내용을 모두 새기지 못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만을 현 비석의 뒷면에 음각하게 되었다고 쓰여 있다.

| 순천 구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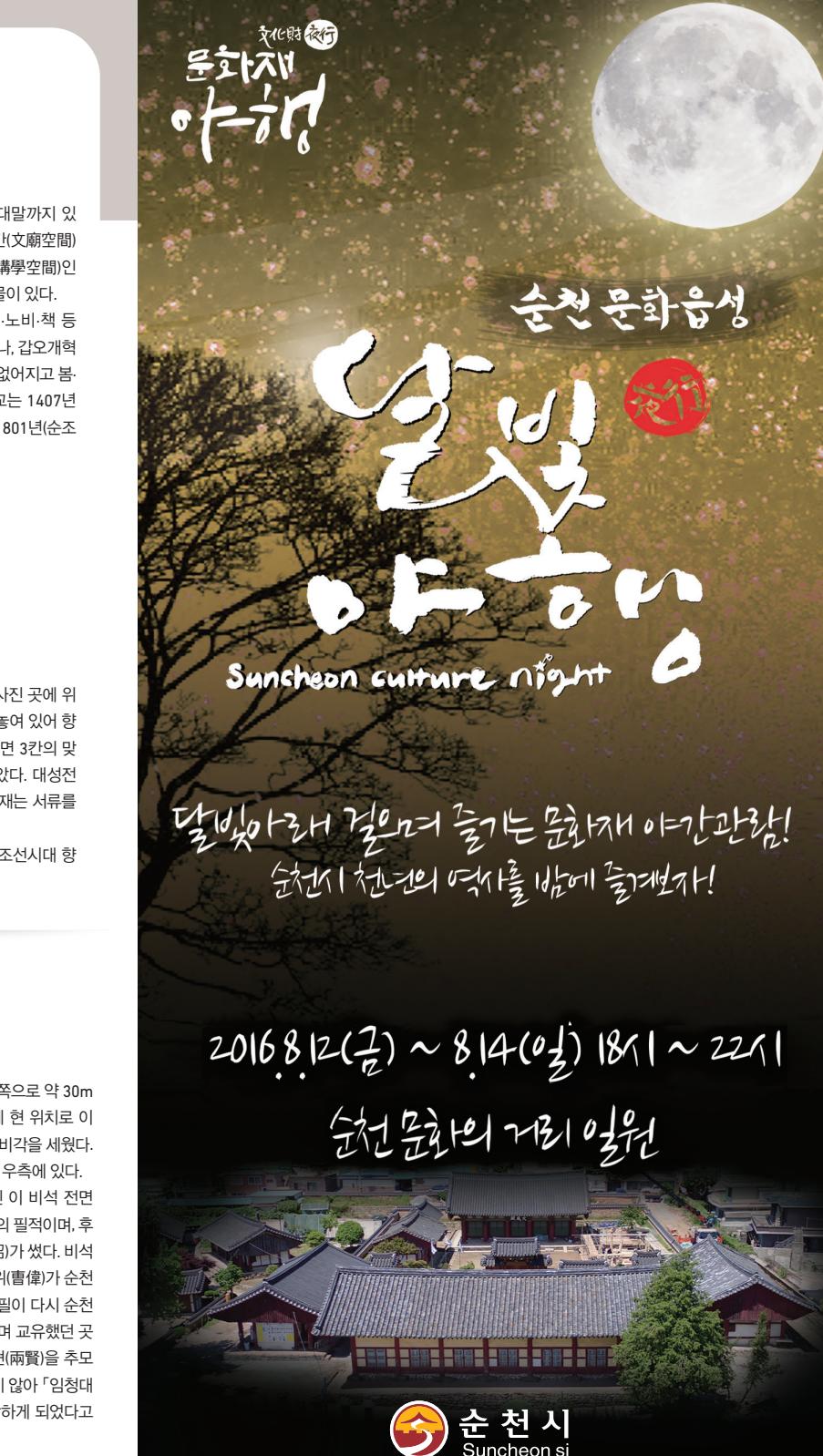
- 소재지: 순천시 매산길 43
- 지정내용: 등록문화재 제126호
- 시대: 1913년

이 건물은 순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프레스턴의 사택으로 건립되었으나, 지금은 매산여고의 어학실로 사용되고 있다. 화강석으로 외벽을 쌓고 한식 기와를 얹은 한·양 절충식의 형태와 건물의 폭과 높이를 거의 1:1로 구성한 것은 순천 및 광주 지역의 선교사 주택 건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1900년 대 초 순천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역사와 주거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현장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 내부는 변형이 있으나 외부는 건립 당시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 소재지: 순천시 매산길 61
- 시설현황: 공립박물관(등록번호 전남-제32호)

순천기독교 역사박물관은 19세기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프레스턴의 사택으로 건립되었으나, 지금은 매산여고의 어학실로 사용되고 있다. 화강석으로 외벽을 쌓고 한식 기와를 얹은 한·양 절충식의 형태와 건물의 폭과 높이를 거의 1:1로 구성한 것은 순천 및 광주 지역의 선교사 주택 건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1900년 대 초 순천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역사와 주거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현장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 내부는 변형이 있으나 외부는 건립 당시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순천으로 초대

여러분, 순천이라는 매력적인 도시를 알고 계십니까?

순천은 물과 숲이 어울려진 자연 속에 순수함과 정겨움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에서 문화재와 함께하는 행복한 역사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 종별의 문화재를 보유한 역사문화 도시입니다.
살아있는 갯벌과 갈대가 반기는 곳 순천만, 느릿느릿 쉬엄쉬엄 오르는 조계산의 선암사와 송광사, 옛 서민들의 삶 그대로를 간직한 낙안읍성 등과 다양한 문화재를 연계하여 여행지를 잡을 경우 교육적이고 체험적인 여행이 될 것입니다.
직접 느껴 보십시오!

여행을 마치고 가실 때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역사의 숨결이 담긴 도시 순천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생태보고 순천만(국가지정 명승)

순천만은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지, 갯벌 등 염습지의 원형이 온전히 보존된 대표적인 생명의 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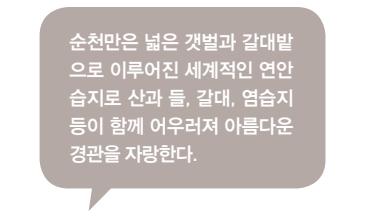
저녁이면 붉게 물든 노을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가 펼쳐진다. 갈꽃이 노을빛으로 물들면 물기며금은 갯벌은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칠면초, 군락은 해풀에 붉은 파도를 탄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면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떠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신물이 아닐 수 있을까!

- 김승옥의 '무진기행' 중에서-



2007년에 국내외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흑두루미 국제 심포지엄'은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와 국제적 우수성을 재확인하는 결실을 남겼다.



조계산 송광사

송광사는 신라 말기 혜린 선사가 터를 잡고 산 이름을 '송광', 절 이름을 '길상'이라 하여 창건하였다.

송광(松廣)의 세가지 전설

- 18분의 큰 스님이 나서서 가르침을 널리 펼침.
- 보조국사가 정혜결사를 옮기기 위해 터를 잡을 때 모후산에서 나무로 깎은 솔개를 날렸더니 지금의 국사전 뒷등에 떨어져 터를 이곳에 잡았다고 함.
- 이 전설을 토대로 송광의 뜻을 솔갱이 하여 송광사를 솔갱이 절이라고 함.
- 산에 소나무가 많아 '솔매'라 불렸고 그에 유래해서 송광산이라 했으며 산 이름이 절이름으로 됨.



| 송광사 보조국사감로탑 (유형문화재)

이 부도는 송광사에서 정혜결사를 일으킨 보조국사의 부도이다.
원구형의 탑신 등이 특이하다.



| 선암사 승선교 (보물)

세상의 바깥으로 비껴 나가는 고요한 길의 끝 자리에 승선교가 있다. 천년 고찰의 단아함을 간직하고 있는 선암사에 이르기 위해 조성한 무지개(虹에)다리이다. 승선교 아래로 내려가 홍에 사이로 강선루를 올려다 보면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의 조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 송광사 국사전 (국보)

승보사찰인 송광사는 보조국사를 비롯하여 16국사를 배출하였는데, 국사전은 16국사의 영정을 모신 전각이다. 주심포 맞배지붕에 우물천정이며 내부 대들보에 그려진 용은 금방이라도 승천할 기세다.



조계산 선암사

사찰건축의 아름다움,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느낄 수 있어 산사의 미학이 숨겨진 곳이다.

선암사의 삼보(철불 1기, 석탑 2기, 부도 3기)와 400년 된 뒷간, 각각의 다른 멋을 자아내는 연못, 6백년 이상된 꽃나무를 볼 수 있다.



| 선암사 대웅전 법당



| 선암사 뒤뜰에 자리한 야생 차밭



| 선거북등 아래 연못 삼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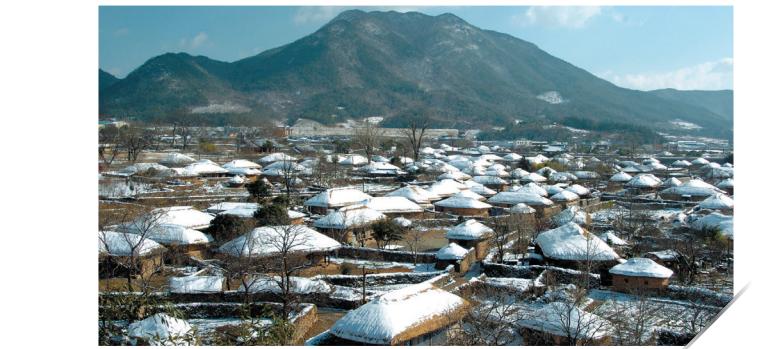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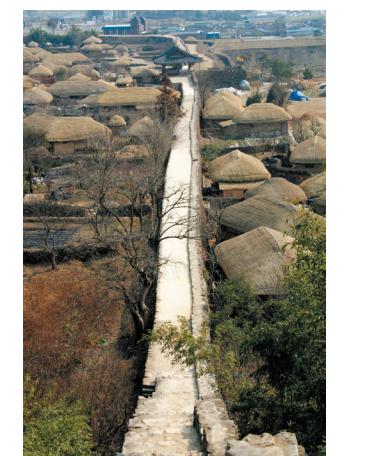
| 낙안읍성 (국가지정 사적)



낙안읍성 (국가지정 사적)

낙안읍성은 삼한 시대 마한땅, 백제때 파지성, 고려때 낙안군 고을터며, 조선 시대 성곽과 객사(客舍), 임경임군수비, 장터, 초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고 성곽과 실제 생활하는 마을이 함께 국내 최초로 사적 제302호에 지정되었다.

동문을 비롯 서·남문을 통해 성안에 들어서면 사극 촬영장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든다.



| 흰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낙안읍성 전경



| 낙안 객사 (유형문화재)

임금을 상징하는 전폐(殿牌)를 모서 초하루와 보름에 예를 올리고, 사신의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신종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1450년 최초 건립하였고, 두번의 중수를 거쳐 1982년 10월 수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